

光산업, 이제 빛고을 났넬다

1 광산업이 있기까지

육성 8년만에 '광주 대표브랜드' 됐다



광주시의 주력산업인 광산업이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 고용창출과 매출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첨단산업단지내 광기술원 연구원들이 공정표를 점검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한때 광산업(鎭産業)으로까지 오해받았던 광산업(光産業)이 8년여가 지난 지금 광주의 대표브랜드로 자리를 잡았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관련기업과 첨단연구기관이 집적화를 이루면서 광산업은 광주 첨단산

업의 상징이 됐다. 광주 광산업 프로젝트와 국내외 광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광주의 광산업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우기 위한 과제들을 총 점검한다.

광산업이란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국제통화기금(IMF)이라는 격량이 몰아치던 1998년이다. 당시 IMF사태로 전국에서는 기업들의 연쇄 부도가 이어졌고, 수많은 직장인들이 거리로 내몰렸다.

광주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역생산과 고용인원의 30%를 차지했던 아시아자동차가 무너지면서 지역사회는 큰 충격과 침체에 빠져들었다. 이어 아시아자동차 협력업체 등 지역은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주저앉았고 또 다른 제조업체와 건설업체, 지역 백화점들이 연쇄도산하면서 광주 지역경제는 붕괴위기에 내몰렸다.

IMF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혜를 모아 야 한다는 숙제를 던져줬다. "밀레니엄 새 산업 찾아라"

IMF를 실행하던 1998년부터 광주지역 경제의 틀을 새롭게 짜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기 시작했으며, 광주시도 이 무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그렇게 해서 수개월 만에 마련된 사업이 '새 천년빛, 동방의 빛 2000'이었으며, 이때 광산업이라는 단어가 공식적인 문건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이 사업은 산업적으로는 첨단산업을 특화 육성해 광주를 '광산업의 메카'로 조성함과

동시에 관광자원을 개발·전송할 수 있는 '도시 야경' 조성을 기본 개념으로 하고 있다. 시는 1999년 12월 24일부터 2000년 1월 2일까지 총 14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빛'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축제·전시·학술행사를 열기로 했으며, 관광자·광조사 및 부품·레이저 응용기기·영상기기 등 첨단제품 전시행사도 개최할

업의 상징이 됐다. 광주 광산업 프로젝트와 국내외 광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광주의 광산업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우기 위한 과제들을 총 점검한다.

이때 광주과학기술원 백운출 교수와 전남대 이병택 교수 등이 다른 지역과 중복을 피해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업종으로 광산업을 광주시

에 제시했다. 이들은 특히 타지역 광산업과의 경쟁을 피해 광통신·LED 등의 광원·광정밀기

Table with 2 columns: Date and Event/Action. Includes dates from 1999 to 2004 and various industry events.

로 육성하겠다는 취지에서 9명의 전문가를 직접 광주로 파견했다. 이들은 광주시의 '광산업 육성 및 집적화 계획'을 토대로 '첨단산업 육성 계획'을 마련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광산업 하나만을 육성하되 타당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1999년 7월 삼성경제연구소에 타당성 용역을 의뢰했으며, 과학기술전략기획연구회에서는 용역 안을 토대로 광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새롭게 짰다.

이에 근거해 기획예산처는 광주 광산업을 부산 신발, 대구 섬유와 함께 국비 1천620억원씩 지원과 민자 출력을 동일하게 정해 놓았다. 시는 광산업을 부산·대구와 달리 기존 인프라가 없다는 점을 주장해 국비를 900억원이 늘어난 2천520억원을 배정받았다.

시는 2000년 1월 광산업 육성 전략 및 비전을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그 해부터 2003년까지 4천200억원을 투입하는 광산업 육성 및 집적화 제1단계 사업에 들어갔다.

광주 광산업은 2005년 산자부가 후원하는 지역산업정책평가에서 대상성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해 감사원이 전국 15개 기관의 특화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산업 진흥사업' 감사 결과,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주시의 광산업체 수는 1999년 47개에 불과했으나 2006년에는 273개로 6배 이상 늘었으며, 매출액도 같은 기간 1천136억원~6천393억원으로 6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광산업은 광주 경제의 버팀목으로 자리를 잡았다.

산자부는 광산업을 광주지역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에서 9명의 전문가를 직접 광주로 파견했다. 이들은 광주시의 '광산업 육성 및 집적화 계획'을 토대로 '첨단산업 육성 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근거해 기획예산처는 광주 광산업을 부산 신발, 대구 섬유와 함께 국비 1천620억원씩 지원과 민자 출력을 동일하게 정해 놓았다. 시는 광산업을 부산·대구와 달리 기존 인프라가 없다는 점을 주장해 국비를 900억원이 늘어난 2천520억원을 배정받았다.

시는 2000년 1월 광산업 육성 전략 및 비전을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그 해부터 2003년까지 4천200억원을 투입하는 광산업 육성 및 집적화 제1단계 사업에 들어갔다.

광주 광산업은 2005년 산자부가 후원하는 지역산업정책평가에서 대상성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해 감사원이 전국 15개 기관의 특화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산업 진흥사업' 감사 결과,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주시의 광산업체 수는 1999년 47개에 불과했으나 2006년에는 273개로 6배 이상 늘었으며, 매출액도 같은 기간 1천136억원~6천393억원으로 6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광산업은 광주 경제의 버팀목으로 자리를 잡았다.

■ 국내외 광산업 현황과 전망

Table showing global and domestic market trends for the optical industry from 2003 to 2007. Columns include Year, Global Market, Domestic Market, and Domestic Share.

세계 시장 292조원 한국이 약 6% 점유

2006년도 광산업 세계 시장규모는 292조 4천760억원, 이중 국내 시장 규모는 17조 2천560억원으로 세계시장의 약 5.9%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광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3년 5.2%에서 2004년 5.4%→ 2005년 5.5%→ 2006년 5.9%→ 2007년 6.2%(예상)로 꾸준히 커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광산업이 꾸준히 성장(연평균 10% 이상)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별로는 미국과 일본이 전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며 광산업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일본은 광통신 분야에서, 미국은 광통신 분야에서 선두를 지키고 있다. 독일은 산업용 광학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러시아 및 중국은 광학유리, 레이저용 단결정 등 광소재기술 분야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광통신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2004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매출 및 수출실적이 호전되고 있는 국내 광산업의 2007년 생산액은 31조 5천8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3.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6년 7조 5천420억원에 달한 무역흑자(수출 15조 6천270억원, 수입 8조 850억원)도 2007년에는 8조 7천 67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적인 초고속인터넷망 및 FTTH확충과 신규 서비스 수요가 꾸준한 발생함에 따라 국내 광통신 업체의 2006년 내수시장

관매 및 수출실적이 개선됐다. 최근 미국 시장조사기관 포레스터 리서치는 내년 IT경기가 다소 둔화하지만 급격하지 않고 완만한 연착륙 형태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광산업의 경우 2007년 세계 IT경기 및 반도체 산업 등, 부품 관련 산업이 견실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인 시장세가 예상된다.

2006년 말 현재 국내 광산업체 수는 1천302개로 전년 대비 약 5%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된 광산업체의 분류별 현황 분석 결과, 광통신분야의 업체 수가 27.65%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보였으며, 광원 및 광전 소자 21.20%, 광정밀기기 16.44%, 광정보기 15.21%, 광소재 12.67%, 광학기기 3.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광산업체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387개(29.7%), 경기 383개(29.4%), 광주 273개(21.0%) 등 3개 지역에 80%가 집중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대전 3.6%, 인천 3.5%, 경북 2.1% 정도이며, 나머지 지역은 1% 내외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광주지역의 경우 광통신, 반도체 광원, 광정밀기기 업체가 골고루 분포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국내 광산업체들은 ▲종업원 수 100명 이하의 기업 비율 83% ▲내 매출액 50억원 이하 64.8% ▲자본금 10억원 미만 52.9% 등으로 대다수가 중소기업이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IMF 극복 지역경제 돌파구 찾기로 시작 광기업·연구기관 집적화...주력산업으로

예정이었다. 비록 이 사업은 예산확보가 안돼 무산됐지만 광주시가 내세운 광산업이 전략산업으로 자리잡게 한 단초가 됐다.

광주시는 1998년 12월 광주지역 대학교수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전략기획연구회'를 구성해 광주의 전략산업 육성방향을 잡았다.

이때 광주과학기술원 백운출 교수와 전남대 이병택 교수 등이 다른 지역과 중복을 피해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업종으로 광산업을 광주시

에 제시했다. 이들은 특히 타지역 광산업과의 경쟁을 피해 광통신·LED 등의 광원·광정밀기

기 및 레이저 응용·광소재로 범위를 한정해 육성하자는 안을 도출했다. 문제는 당시 광산업을 소수의 전문가를 제외하곤 아는 이가 거의 없다는 것이었다.

산업자 원부 등 관련 중앙부처 직원들에게도 광산업을 생소한 용어였다. 광산업 하면 탄광을 떠올려 鑛産業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고, 빛 광(光) 광산업이라고 설명하면 "백열등을 만드는 거야 형광등을 만든다는 거야"라는 비아냥을 듣기 일쑤였다.

산자부는 광산업을 광주지역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에서 9명의 전문가를 직접 광주로 파견했다. 이들은 광주시의 '광산업 육성 및 집적화 계획'을 토대로 '첨단산업 육성 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근거해 기획예산처는 광주 광산업을 부산 신발, 대구 섬유와 함께 국비 1천620억원씩 지원과 민자 출력을 동일하게 정해 놓았다. 시는 광산업을 부산·대구와 달리 기존 인프라가 없다는 점을 주장해 국비를 900억원이 늘어난 2천520억원을 배정받았다.

시는 2000년 1월 광산업 육성 전략 및 비전을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그 해부터 2003년까지 4천200억원을 투입하는 광산업 육성 및 집적화 제1단계 사업에 들어갔다.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인동상일부동산' featuring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and contact information.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LC타워(주)' featuring '첨단 최고의 요지' and '최적의 조건으로 임대합니다'.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일가공인중개사' featuring '상가건물 매매' and '토지매매'.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한일지도판매(주)' featuring '2007 최신 광주지번도' and '책 판매개시!!'.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효성공인중개사' featuring '대지매매(교회, 원, 부흥부지)' and '물류창고, 공장부지'.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지부동산' featuring '임야,목장,아파트 전월주택 전문' and '대지부동산 T.062-371-2440'.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주)홈콘부동산 리서치' featuring '당사 대표 주요 경력' and '전화 한통화로, 이미 한발 앞서갑니다'.